



광주 '브랜드 택시' 달린다

광주시가 내년부터 수익원의 예산을 지원해 신용·교통카드 요금 결제가 가능하고, 승객들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택시를 부를 수 있게 하는 '택시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가용 승용차 증가·지하철 개통·시내버스 준공영제 등으로 이용객이 격감하면서 불친절하다는 비난을 받아온 택시가 친절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는 7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택시업체 등에서 3여원을 부담하게 해 개인택시 500대, 법인택시 500대 등 모두 1천대에 GPS 콜시스템을 장착해 위치추적은 물론, 승객과 가장 가까운 차량 배차·조용한 호출 등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중에 콜시스템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1월 중

- 市, 내년 2월부터 1,000대 운행
- 신용·교통카드 결제... 호출서비스
- 승객 보호·위치 추적 장치도 갖춰

에 콜 시스템 장착·외부 도색 등을 한 뒤 2월에는 브랜드 택시 발매식을 거쳐 서비스를 시작한다.

'브랜드 택시'에는 안전운전 안내 기능(네비게이션)을 겸비한 카드 결제기와 영수증 발행기도 탑재한다. 택시강도 등의 위험으로부터 운전기사와 승객을 보호하는 방법 기능도 추가한다.

시는 또 '브랜드 택시'의 단일 호출번호 사용, 기사들의 통일된 제복 착용 등을 권장할 예정이다.

시는 '브랜드 택시'를 이용해 관광 안내와 시정 홍보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의 이 같은 택시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 같은 기능 장착만으로 그동안 과속운전, 과도한 실내소음 등으로 승객들을 불편하게 해 온 광주 택시가 친절한 택시로 변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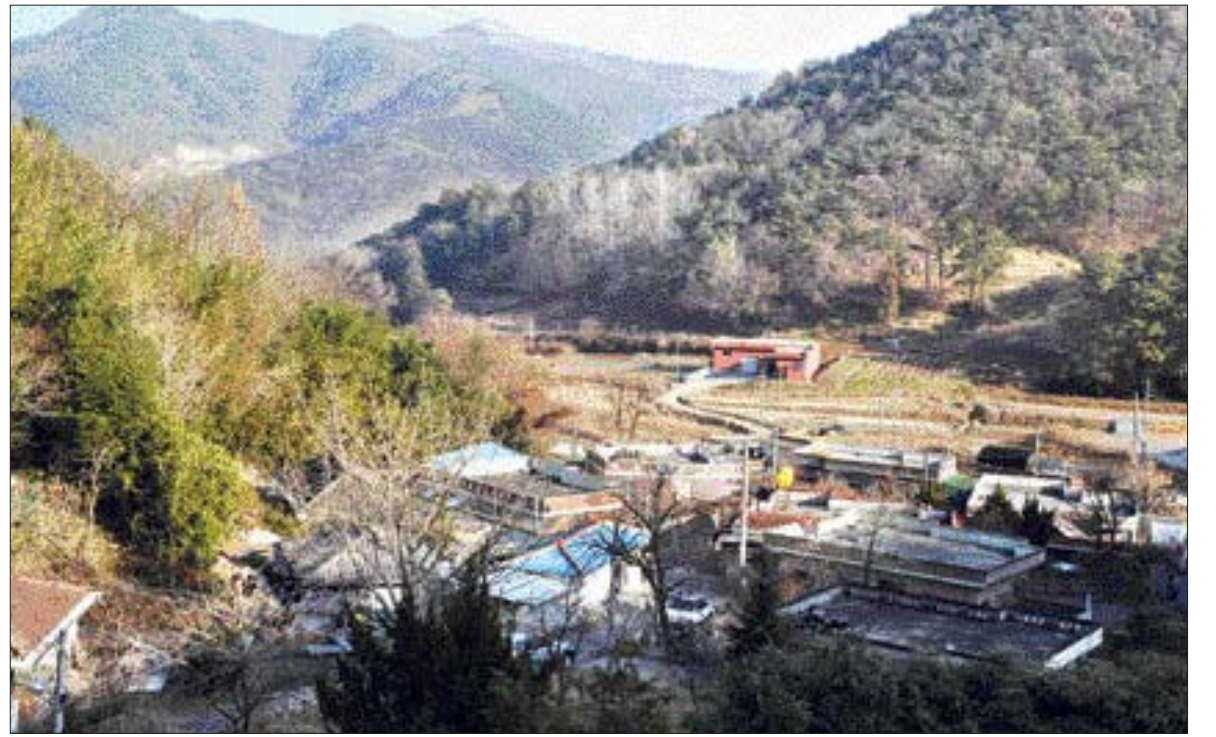
회사원 이모(50)씨는 "광주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적절한 교육도 병행해 친절한 택시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에는 8천276대(개인 4천769대·법인 3천507대)의 택시가 영업중이며 이 가운데 35.3%인 14개 업체 2천924대가 '콜택시 네트워크'에 가입해 있다. 하지만 소규모 콜택시 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해 있다.

또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지하철 개통·시내버스 무료 환승 등으로 지난 95년 이후 매년 평균 9.27%의 승객이 줄어왔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감소율은 0.71%에 불과하다. 광주 택시의 수송분담률은 2007년 6월말 현재 20.2%로 시내버스(37.5%)나 승용차(27.3%)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김정기자 jjnews@kwangju.co.kr



내년 중에 수돗물이 공급되는 광주시 동구 월남동 칠전마을. 27가구 57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위직림기자 jrwi@kwangju.co.kr

'도심 속 오지' 광주 동구 칠전마을 27가구

내년부터 수돗물 공급

15억 들여 주거개선

수돗물이 나오지 않았던 도심 속 오지인 광주시 동구 월남동 칠전마을에 내년 초 수돗물이 공급된다.

광주시 동구청은 19일 "월남동 칠전마을에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수돗

물을 공급하는 등 주거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7가구 57명이 살고 있는 칠전마을은 노인 인구가 많고, 대부분 저소득층이다. 수도관을 설치하면서 거리를

환산해 수혜자에게 부과되는 자부담금 86만원을 내지 못해 수돗물을 공

급받지 못했다.

주민 허정태(65)씨는 "갈수기에는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소방차를 불러 물을 받는 등 불편이 컸다"면서 "이제는 맘 놓고 물을 마실 수 있다니 꿈만 같다"고 말했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가 최근 용산차량기지에서 마을입구까지 상수도관 600여m를 매설했고, 동구청이 주민 부담금 절반을 지원해 이르면 내년 초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동구청은 ▲마을 안길 확장 ▲하수도 정비 ▲경로당 신축 ▲가로등 설치 등 기반시설도 정비할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스쿨존 공사' 상인 반발로 중단

서구 유촌초등 주변 안전펜스 설치

상인들 "주차 공간 줄어 손님 감소"

광주 서구에서 추진 중인 스쿨존(School Zone) 공사가 인근 상인들의 강력한 반발로 내년으로 연기됐다.

19일 서구청에 따르면 구는 스쿨존 설치를 위해 지난 10월 중순부터 서구 유촌동 유촌초등학교 주변에 인도

를 설치하는 공사를 추진해 왔으나 인근 상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공사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구는 등하교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후문으로 진입하는 도로변 140여m에 안전펜스를 설치해 인도를 만들 계획이었지만 이곳 상인들이

'인도가 들어서면 주차를 할 수 없어 식당 등의 손님이 줄어들 것'이라며 반발하자 지난달 6일 공사를 잠정 중단했다.

구는 지난달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상인들과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 공무원, 경찰, 서구의회의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수차례 협의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사를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구는 스쿨존 공사를 앞두고 지난 5월 말 열린 공청회에 이해관계자인 학교 근처 상인들을 참석시키지 않고 공사를 시작해 이들에게 반대 명분을 주고 갈등을 감정적으로 치달게 한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구가 공익을 위해 사업을 시작했으면 반발이 있더라도 갈등을 조정해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구 관계자는 "다른 곳에 주차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내년에는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남구 초등학생 위한

'겨울독서교실' 운영

내년 1월7일~11일

광주시 남구에 초등학생을 위한 '겨울독서교실'이 운영된다.

남구는 "겨울방학을 맞아 내년 1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 남구 문화예술회관 문화정보도서관에서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2008 겨울독서교실'을 개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독서교실은 초등학교 3~4학년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나만의 책 만들기', '교과서 속 한국역사배우기', '영어독서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 올바른 독서습관을 키울 수 있도록 도서관·어린이 열람실 이용 방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31일까지 남구문화정보도서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 평생학습과 문헌정보팀(650-8155)나 남구문화정보도서관 어린이실(650-8366)에 문의하면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구청서 잘못 부과한 개발부담금

"더내라" "못낸다" 공방

광주지역 한 건물주가 북구청 직원의 실수로 추가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낼 수 없다"며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김모(여·43)씨는 지난 2001년 1월18일 북구 매곡동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대지면적 783㎡·연면적 2천265㎡)의 건물을 지었다. 김씨는 7개월 뒤 토지개발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576만원을 구청으로부터 부과받고 바로 납부했다.

건물 임대사업을 하던 김씨는 지난 2003년 12월19일 구청에서 보낸 '개발부담금 정정 통지' 공문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내

용은 '감사원 감사결과 개발부담금 산출 기준이 잘못 적용됐으니, 당초 납부한 금액 576만원을 뺀 7천300만원을 더 내라'는 것이었다.

당시 담당 직원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경우 '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지가(地價·1㎡당 65만7천원)로 부과금액을 정하도록 돼 있으나 공시지가(1㎡당 28만1천원)를 잘못 적용했기 때문이다.

정정 공고문을 받은 지 3년 여가 지난 현재 김씨는 추가부과 금액 7천300만원을 포함한 가산금 이자

▲개발부담금=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의 형질 변경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환수하는 제도.

3천630만원이 더해져 모두 1억9300만원을 미납해 구청으로부터 건물 압류조치를 당했다.

김씨는 "잘못은 구청에서 저지르고 책임은 민원인에게 지라는 꼴"이라며 "구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직원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개발부담금의 경우 국제인 만큼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생활안내		신고	
교통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법률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위원회 상설상담소 671-4050 광주 YWCA 527-0011 ●24시간 청소년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안양이 1388 ●국세중앙상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 1588-0060 ●영유권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전남법무청 1588-9090 ●소비자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 YMCA 232-6133 광주 YWCA 524-5400 주부교실 232-0643-4 녹색소비자문제연구소 369-9881 ●학교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안양이 112 전남경찰청 226-0112 광주지검 233-2828 ●사이버테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021118 ●가정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긴급국번없이 1366 여자행사기동대 363-0155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안양이 1391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안양이 13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안양이 1388 ●국세중앙상담센터 1588-0060 ●영유권상담 1588-9090 ●소비자 상담 232-6133 광주 YMCA 524-5400 주부교실 232-0643-4 녹색소비자문제연구소 369-9881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직번호사(2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사복 233-3690 ●법무사회 법률상담(2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영란 239-18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안양이 112 전남경찰청 226-0112 광주지검 233-2828 021118 여성긴급국번없이 1366 여자행사기동대 363-0155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국립안양이 1391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1389 	

아~ 고구려여!

광개토대제시여!

이제 곧 부활의 문을 열겠나이다.